

왜 플라톤을 번역하는가? 르네상스 플라톤주의자 피치노의 대답

송 유 레*

[국문초록]

르네상스 철학자 피치노는 플라톤과 플라톤주의자들의 그리스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함으로써 플라톤주의를 서구 유럽으로 귀환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피치노는 왜 플라톤을 번역한 것일까? 본 논문의 목적은 그가 되살리고자 한 플라톤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히 피치노가 번역서를 비롯한 저술들을 출간하며 남긴 서문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서문들에는 그가 플라톤주의 고전들을 번역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가 플라톤주의에 부여하는 의미와 기대하는 역할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우선 피치노의 플라톤주의의 문화적 배경인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특징을 간략히 짚어볼 것이다. 아울러 피치노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핵심 개념인 '후마니타스'(humanitas)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피치노의 서술들에 근거하여 그가 어떤 플라톤주의를 추

* 경희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주제어: 경건한 철학, 공통의 종교, 르네상스 인문주의, 옛 신학, 플라톤주의, 피치노
Pia philosophia, common religion, Renaissance humanism, *Prisca theologia*, Platonism, Ficino

구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가 추구한 플라톤주의는 일종의 '경건한 철학' 내지 '신학, 나아가 '철학적 종교'로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피치노가 플라톤주의를 고대 이교 신학 전통의 완성으로 내세우기 위해 사용한 '옛 신학'과 '공통의 종교'의 관념들을 조명할 것이다. 이어서 플라톤주의자인 동시에 그리스도교인인 피치노가 플라톤주의와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다룬 서술들을 분석할 것이다. 피치노는 플라톤주의에서 지성인들을 그리스도교로 이끌기 위한 철학적 수단을 발견했지만, 플라톤주의를 그리스도교적으로 전유하려는 시도에서 결국 자신의 그리스도교관 또한 플라톤주의화했음이 밝혀질 것이다.

1. 들어가며

마르실리오 피치노(1433-1499)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저명한 메디치가의 후원 아래 피렌체 아카데미를 이끌었으며, 플라톤과 주요 플라톤주의자들의 그리스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해석함으로써 플라톤주의를 서구 유럽으로 귀환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¹⁾ 중세 서구 유럽에서 플라톤 저작 가운데 라틴어로 번역된 것은 소수에 불과했다. 피치노는 장기간의 노고 끝에 1484년 마침내 플라톤 저작의 라틴어 번역을 출간했다. 그의 번역은 이후 300년 이

1) P. O. Kristeller (1972), *Die Philosophie des Marsilio Ficino*, Frankfurt am Main: Klostermann, p. IX; T. Albertini (2010), "Marsilio Ficino (1433-1499): The Aesthetics of the One in the Soul", *Philosophers of the Renaissance* (ed. by P. R. Blum),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p. 84. 피치노는 고대 후기의 신플라톤주의 관점에서 플라톤을 해석했기 때문에 신플라톤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는 고대후기 플로티누스와 그의 학파의 사조를 지시하기 위해 근대에 도입된 용어이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주의 전통에 속하며,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스스로를 '플라톤주의자'라고 불렀다. 마찬가지로 피치노도 자신을 플라톤주의자라고 여겼다. 그가 어떤 종류의 플라톤주의자인지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상 플라톤 연구의 표준적인 준거로서 기능한다. 또한 그는 플라톤 저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과 해설을 제공했으며, 일부 저작에 대해서는 주해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나아가, 그는 중세 서구에 직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던 고대 후기 플라톤주의자들의 주요 저술들을 번역함으로써 플라톤주의 연구의 지평을 확대했다.

그런데 피치노는 왜 플라톤과 플라톤주의자들을 번역한 것일까? 사실, 피치노는 플라톤주의 고전의 번역가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철학자로 인식했다. 그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자신의 시대에 되살리고자 한 플라톤주의자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피치노가 되살리고자 한 플라톤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피치노가 어떤 관점에서 플라톤주의를 바라보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금 그가 무엇을 위해 플라톤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왜 그가 플라톤주의 고전을 번역했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피치노가 플라톤과 플라톤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피치노가 생각한 플라톤주의의 기능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펼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피치노가 번역서와 주해서 및 저서를 출간하며 남긴 서문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서문들에는 피치노가 플라톤주의 고전들을 번역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가 플라톤주의에 부여하는 의미와 기대하는 역할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고대 플라톤주의가 부활한 것은 이른바 ‘르네상스’, 즉 고대 그리스·로마 고전의 재생을 추구한 광범위한 문화적 운동의 맥락 속에 위치한다. 이 ‘르네상스’ 운동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인문주의’라는 용어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먼저 피치노의 플라톤주의의 문화적 배경인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더불어 피치노가 인문주의의 핵심 개념인 ‘humanitas’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피렌체 아카데미에 대한 피치노의 서술들에 근거하여 그가 추구한 플라톤주의가 일종의 '경건한 철학'임을 밝힐 것이다. 이 주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피치노가 플라톤주의를 고대 이교 신학 전통 안에 위치시키기 위해 사용한 '옛 신학'(prisca theologia)이라는 관념을 살펴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치노가 이교적 플라톤주의와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다룬 서술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치노의 플라톤주의에 대한 반성적인 평가와 함께 이 글을 마무리지을 것이다.

2.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플라톤주의의 부활

'르네상스'는 흔히 서양 고대 문명의 부활을 통해 암흑과 야만의 중세가 종식된 시기로 기억된다.²⁾ 하지만 많은 중세 전문가들은 중세가 암흑과 야만의 시대라는 관념을 거부했으며, 중세와 르네상스, 나아가 근대와의 연속성을 간과한 채 단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을 비판했다. 심지어 '르네상스'가 역사적 실체가 없는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암흑기를 종식시킨 '르네상스'가 적어도 페트라르카를 비롯한 르네상스 대표 주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중세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떠나—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³⁾ 그들은 새로운 시대, 암흑과 야만이 아니라, 광명과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피치노가 1492년 9월 13일 미텔부르그의 파울

2) 야콥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 1818-97)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시론(試論)』(1860)은 이러한 종류의 르네상스 관념이 대중화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부르크하르트적인 르네상스 관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나우어트(2002), 진원숙 역, 휴머니즘과 르네상스 유럽문화, 서울: 혜안, pp. 17-23 참조. Cf. E. Cassirer (1945), "Ficino's Place in Intellectual Histor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6, p. 483.

3) 나우어트(2002), p. 21, pp. 51-54.

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러한 자의식과 자부심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하여 만약 어떤 세기가 우리에게 황금기라고 불린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도처에 황금 지성들(ingenia)을 제공하는 세기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 세기라는 것을, 이 세기의 훌륭한 발견들을 고려하길 원하자는 자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기가 황금기처럼 거의 꺼져버린 자유 학문들, 즉 문법, 시, 연설, 회화, 조각, 건축, 음악, 오르페우스의 튀라에 맞춰 부르는 고대의 노래를 다시 빛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reduxit in lucem).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피렌체에서. 그것은 고대인들에 의해 특히 경배되었지만 거의 파괴되어버린 어떤 것을 복원했는데, 즉 지혜를 웅변과 결합했고, 진술을 슬기로운과 결합했다. …… 피렌체에서, 더욱이, 플라톤의 가르침이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소환되었다(Florentiae quinetiam Platonicam disciplinam in lucem e tenebris revocavit).⁴⁾

여기에서 피치노는 자신이 살았던 15세기의 문화적 성취를 어떤 것을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이끌거나 불러온 것에 비유했다. 그리고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에 자신의 손을 거친 플라톤주의도 포함시켰다. 이처럼 피치노는 플라톤주의의 부활 내지 귀환을 자신이 살고 있는 ‘황금기’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보았다.

주지하듯이, 르네상스 문화 운동은 ‘인문주의’(humanism)로 특징지어진다.⁵⁾ 여기에서 ‘인문주의’가 인간주의 또는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하는

4) Ficino (1576), *Opera Omnia*, Basel, p. 944 (이하 Ficino, *Opera* 944로 축약). ‘황금기’라는 관념에 관해서는 헤시오도스의 『일과 나날』110-200 참조. 본 논문의 라틴어 원전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5) 사실, 인문주의로 옮긴 ‘humanism’은 19세기에 생성된 용어이다. 독일의 교육학자 니트하머는 실용적인 직업 교육을 목표로 한 실업학교(Realschule)와 달리, 김나지움(Gymnasium)은 자유롭고 지적인 인간성의 계발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로마 고전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지칭하기 위해 ‘Humanismus’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 용어는 19세기 중반 이래 14-16세기

철학사조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인문주의자들은 주로 문학적 내지 문헌학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⁶⁾ 그들은 고대 로마의 키케로와 켈리우스의 'humanitas' 개념을 수용하여, 인간다움의 본질이 교양 내지 교육(paideia)에 있다고 보았고, 그리스·로마의 고전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⁷⁾ 14세기 초에 'studia humanitatis', 즉 '인문학' 내지 '교양 학문'은 그러한 고전 교육 중심의 교과를 지시했으며, 15세기 후엽에는 인문학의 직업적 교사를 일컫는 'humanista'가 등장해서 이후 널리 쓰이게 되었다. 마침내 15세기 중엽 이후에 와서야, 즉 피치노가 활동한 황금기에 와서야, 인문주의는 다양한 학문과 예술 분야를 포괄하는 문화 운동으로 확산된다.⁸⁾

피치노는 이처럼 만개한 인문주의의 시대에 활동한 철학자이다. 그는 인문주의 교육을 통해 습득한 고전 그리스어와 라틴어 실력을 바탕으로 그리스 철학자들의 고전들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문법, 수사학, 시와 역사, 도덕 철학과 같이 '전통적인' 인문학 커리큘럼에 속하지 않는 철학 분야인 형이상학을 연구하는 데 매진했기 때문에 인문주의자가 아니라 전문적 철학자로 규정되곤 한다.⁹⁾ 물론, 피치노는 좁은 의

르네상스 시대에도 적용되어, '르네상스 인문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Cf. F. I. Niethammer (1808), *Der Streit des Philanthropinismus und Humanismus in der Theorie des Erziehungs-Unterrichts unsrer Zeit*, Jena: Frommann, p. 63, pp. 76-84; 크리스텔러 (1995), 진원숙 역, 르네상스의 사상과 그 원천,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pp. 41-42.

6) E. Cassirer (1945), p. 497. 실제로,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철학 연구가 아니라, 문법과 수사학의 연구에서 출발했으며, 15세기 초에 시와 역사, 도덕 철학을 아우르는 연구 분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철학 분야들, 즉 논리학, 자연학, 형이상학은 제외되었다. 초기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라틴어의 문법과 수사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키케로를 모범으로 삼았다.

7) Cf. W. Stroh (1989), "Der Ursprung des Humanitätsdenkens in der Römischen Antike", http://epub.ub.uni-muenchen.de/1273/1/senior_stud_2006_11_01.pdf.

8) 크리스텔러(1995), pp. 121-122, pp. 129-131, p. 355, 각주 60.

9) 나우어트(2002), p. 129.

미의 인문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특히, 고전 문헌학자를 인문주의자의 전형으로 삼는 독일 신인문주의 전통에 따르면, 철학자 피치노는 전형적인 인문학자는 아니다.¹⁰⁾

하지만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을 'humanista'라고 불린 사람들의 활동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문화 운동의 모습을 제대로 조망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피치노가 (그보다 젊고 더 유명한 동료인 피코 델라 미란돌라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한 철학적 인간학을 전개했을 때, 그의 철학적 활동은 무엇보다도 고전 교육을 통한 진정한 인간성의 실현이라는 인문주의 이념에 충실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철학적 '휴머니즘'을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격리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¹¹⁾

앞에서 언급했듯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키케로와 켈리우스의 'humanitas' 개념을 물려받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켈리우스는 라틴어 'humanitas'의 정확한 의미가 - 민중들이 이해하는 바와는 달리 - 그리스 어에서 호의와 인간애를 뜻하는 'philanthropia'가 아니라, 교양 내지 교육을 뜻하는 'paideia'에 상응한다고 단언했다.¹²⁾ 그러나 이탈리아 인문주의

10) 독일 신인문주의 이념에 대한 상세하고 비판적인 논의는 S. Toussaint (2008), *Humanismes, Antihumanismes. De Ficin à Heidegger*. Tome 1, Paris: Les Belles Lettres, pp. 63-106.

11) 르네상스 연구사에서 인문주의와 철학을 엄격히 분리시키려는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는 Paul Oskar Kristeller이고, 철학을 인문주의의 정점으로 보는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는 Eugenio Garin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S. Toussaint (2008), pp. 18-19, p. 43, pp. 69-71 참조. 필자는 인문주의가 철학 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Kristeller에 동조하지만, 철학이 인문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Garin에 동의한다.

12) *Noctes Atticae*, 13. 17. W. Stroh (1989), pp. 9-13는 켈리우스의 주장과 달리 키케로는 라틴어 'humanitas'를 교육과 인간애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Humanismus'라는 용어를 만든 F. I. Niethammer (1808)도 '인문주의'를 교육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인간성'을 교양과 학식에 국한시키고, 인간애 개념과 분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Cf. S. Toussaint (2008), pp. 67-99.

자들 사이에는 인간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드는 인간성이 교양뿐만 아니라, 인간애에도 놓여 있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³⁾ 이러한 생각은 라틴어의 일상 어법을 반영한다. 피치노는 바로 그러한 광의의 인간성 개념을 내세웠다.

피치노는 1474년 4월 미네르베티(Minerbetti)에게 보내는 편지¹⁴⁾에서 인간성(humanitas)을 ‘모든 인간들을 한 아버지에서 긴 계통에 따라 태어난 형제들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것’ (omnes homines quodammodo ceu fratres ex uno quondam patre longo ordine natos diligit atque curat)으로 규정한다. ‘인간성에 관하여’(De humanitate)라는 제목이 붙은 이 편지에서 피치노는 잔인한(crudeles) 인간들이 비인간적(inhumani)이라고 불리는 일상 어법을 지적하면서 인간성을 잔인성과 대조시킨다. 이러한 의미의 인간성을 그는 ‘사랑(charitas)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리스어 ‘philanthropia’ (인간애)의 의미에 상응한다. 그는 이러한 어법에 따라 네로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피부를 지닌 괴물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피치노는 ‘인간성’을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보편적인, 규범적인 본성으로 개념화하는 한편, 그 인간성의 내용으로 인간애 내지 형제애, 간단히 사랑을 내세운다.

이뿐 아니라, 피치노는 이 편지의 말미에서 인문학을 언급하면서 ‘humanitas’를 ‘paideia’의 의미로 사용한다. 거기에서 그는 그가 추구한 이상적인 인간상이 ‘[인간애를 뜻하는] 인간성과 그리스어·라틴어 인문학에서 탁월한 사람’(vir humanitate humanitatisque studiis tam Grecis quam Latinis excellens)임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치노가 그리스·로마 고전 연구를 통해 추구했던 ‘humanitas’가 단지 교양이나 학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호의와 사랑을 포괄하는 인간성이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13) 이 점은 기존의 르네상스 인문주의 연구에서 간주 간과되었다. Cf. S. Toussaint (2008), pp. 53.

14) Ficino, *Opera* 635. Cf. S. Toussaint (2008), pp. 47-57.

그렇다면 왜 피치노는 자신이 수용하고 전승할 고전으로 플라톤을 선택했을까? 이 선택에서 피치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미 그 이전에 플라톤에 관심을 가진 인문주의자들이 있었다.¹⁵⁾ 14세기 중엽 이후 이탈리아로 이주한 비잔틴 학자들에 의해 이전까지 서구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플라톤의 작품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번역되기 시작했다.¹⁶⁾ 특히, 플라톤주의를 옹호한 비잔틴 학자들과의 교류는 플라톤에 대한 인문주의자들의 관심을 증대시켰다. 피치노의 플라톤 번역도 그러한 교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15) 이러한 플라톤에 대한 관심은 최초의 인문주의자로 평가받는 페트라르카(1304-1374)에서부터 발견된다. 페트라르카는 비록 플라톤 철학에 정통하지 못했지만, 플라톤의 그리스어 필사본을 최초로 소유한 서구 학자였다. 페트라르카는 스킴라주의가 지배하는 대학의 철학 교육에 반발하여,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훌륭한 철학자라고 주장했다. 『자기 자신과 대중의 무지에 관하여』(De sui ipsius et multorum ignorantia)에서, 우리의 인문주의자는 자신의 지적 프로그램을 플라톤적 지혜, 그리스도교적 신앙, 키케로적 웅변으로 요약하면서, 플라톤의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보다 그리스도교 교리와 결합되기 더 쉽고, 윤리적 실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중세의 학제에 따르면, 대학생은 학부과정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 신학, 의학, 법학으로 진학한다. 학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가운데 논리학이 집중적으로 교육되었다. 페트라르카는 철학의 중심이 윤리학이어야 한다고 믿었고, 논리학 중심의 교육이 철학을 윤리적 실천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물론, 이것은 당대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Cf. Francesco Petrarca (1955), *Prose* (ed. G. Martellotti et alii), Milano: Napoli: Ricciardi, p. 760; 크리스텔러(1995), p. 3, p. 83, p. 139. 페트라르카의 플라톤주의로의 전회에 대해 C. Zintzen (1998), "Plotin und Ficino", *Ψυχή - Seele - anima*. Festschrift für Karin Alt zum 7. Mai 1998 (ed. by J. Holzhausen), Stuttgart/Leipzig: Teubner, pp. 419-421.

16) 15세기 초 시인 레오나르도 브루니(Leonardo Bruni)가 『파이돈』, 『고르기아스』, 『크리톤』, 『향연』, 『소크라테스의 변론』 및 서한들을 번역했는데, 번역의 정확성이 피치노의 번역에 비해 떨어진다. Cf. 크리스텔러(1995), pp. 192-193.

3. 피렌체 아카데미의 플라톤주의

1484년 플라톤 전작의 라틴어 번역을 출간한 후, 피치노는 신플라톤주의의 주창자인 플로티누스의 전작 번역에 착수한다. 1492년에 출판된 플로티누스의 번역서에는 피치노의 자서전적 서술이 담겨 있는 서문이 포함되어 있다. 로렌초 대공에게 헌정된 서문은 피치노가 플라톤을 번역하게 된 경위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원로원의 법령에 따라 국부인 위대한 코시모는 피렌체에서 교황 에우게니우스 4세 아래 그리스인들과 라틴인들 사이에 공의회가 열렸을 때, '게미스토스'라는 이름과 '플레톤'이라는 별명의 그리스 철학자가 마치 또 다른 플라톤처럼 플라톤주의 신비에 대해(*de mysteriis Platonis*) 논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의 열렬한 말에 곧바로 매우 고양되고, 활기를 얻게 되어, 그 때부터 기회가 오는 대로 세상에 내 놓을 일종의 아카데미를 마음 깊이 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위대한 메디치는 그가 '임신한' 위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출산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총애하는 의사 피치노의 아들인 나를, 당시 아직 소년이었는데, 그와 같은 대업을 위해 선택했고, 바로 그것을 위해 그 날부터 교육했습니다.¹⁷⁾ 게다가 그는 내가 플라톤의 전작뿐만 아니

17) 코시모가 당시 소년이었던 피치노에게 플라톤 번역이라는 대업을 맡길 생각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491년 11월 24일 피치노가 발로리(Valori)에게 보내는 편지(*Opera*, 929)에 따르면, 코시모는 피치노가 23세에 집필한 『플라톤 학설』(*Institutiones Platonicae*)을 읽은 후,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플라톤 연구의 심화를 위해 그리스어를 배우길 권유했다. 『생명에 관하여』(*De vita*)의 서문에서 피치노는 코시모 메디치를 정신적 아버지로 묘사한다. “미천한 사제인 나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다. 의사 피치노와 코시모 데 메디치. 나는 전자로부터 태어났고, 후자를 통해 다시 태어났다(renatus). 전자는 의사이자 플라톤주의자인 갈레노스에게 나를 맡겼고, 후자는 나를 신적인 플라톤에게 바쳤다.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마르실리오에게 의사의 운명을 지게 했다. 사실, 갈레노스는 육신의 의사이고, 플라톤은 실로 영혼의 의사이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플라톤 아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의술을 연마하고 있다. 내가 그의 책을 전부 번역하고 나서, 나의 아버지

라 플로티누스의 그리스 책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후 1463년에, 내가 서른 살이었을 때, 그는 우선 세 번 위대한 메르쿠리우스,¹⁸⁾ 이어서 플라톤을 번역하라고 명했습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 메르쿠리우스 번역을 몇 달 만에 끝냈고, 플라톤 번역도 그때 시작했습니다.¹⁹⁾

이 서문에 따르면, 피치노는 피렌체 아카데미²⁰⁾를 설립한 코시모 데 메디치의 계획에 따라 플라톤을 번역하게 되었다. 피치노는 코시모의 아카데미 설립 계획을 게미스토스 플레톤(1355-1452)의 피렌체 방문과 연결시킨다.²¹⁾ 1438년 페라라에서 라틴교회(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의 결합을 위한 공의회가 개최되었고, 플레톤을 포함하여 700여 명의 그리스측 대표단이 파견되었다. 1439년 공의회는 피렌체로 옮겨 개최된다. 피치노에 따르면, 코시모 데 메디치는 플레톤이 마치 제2의 플라

메디치를 흡족하게 하기 위해 내 힘껏 영혼의 불멸성과 영원한 행복에 관해 18권의 책을 썼다. 다음으로 진정 의사 아버지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방식에 대한 책을 집필했다." (*Opera* 493)

- 18)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Hermes Trismegistus)를 가리킨다. 'Trismegistus'(세 번 위대한)의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위대한 사제이자 위대한 철학자이며 위대한 왕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Cf. B. P. Copenhaver (1992), *Hermet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xlvi.
- 19) Ficino, *Opera* 1537.
- 20) 피렌체 아카데미는 16세기의 아카데미들처럼 제도적으로 확립된 학술 기관이 아니라, 느슨한 형태의 친구들의 모임으로 동호회와 학술 세미나, 종파 집단이 조합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아카데미의 회합에는 철학자뿐만 아니라, 시인, 음악가, 수학자, 건축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이 참가했다. Cf. P. O. Kristeller (1990), *Renaissance Thought and the Ar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93; Field는 피렌체의 '아카데미'가 단지 플라톤의 저서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거나 피렌체 대학에 소속된 비-플라톤주의 교육 기관이라고 주장한 Hankins의 주장에 맞서 Kristeller의 해석을 옹호했다. Cf. A. Field (2002), "The Platonic Academy of Florence", *Marsilio Ficino: His Theology, His Philosophy, His Legacy* (ed. by Allen and Rees), Leiden: Brill.
- 21) B. Tambrun (2006) *Plethon. Le Retour de Platon*, Paris: Vrin, p. 17 ff.

튼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영감을 받아 아카데미의 설립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시모가 감명 받은 이야기는 '플라톤주의 신비'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코시모가 구상한 플라톤 아카데미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플라톤주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피치노에게서 '신비'(mysterium)는 용어의 원래 의미처럼 신비 종교의 제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신적인 일에 관한 사유', 다시 말해 '신학'을 의미한다.²²⁾ 그렇다면 코시모가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의 내용은 플라톤주의 '신학'이다. 따라서 코시모는 플라톤 아카데미를 신학적, 종교적 관심에서 구상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피치노는 플라톤 전작의 라틴어 번역에 실은 서문에서 우리의 추측을 확인해 준다.

신적인 섭리는 만물에 힘차게 닿아 조화롭게 질서지우면서, 관후한 로렌초여, 성스러운 종교를 단지 예언자들과 무너들과 학식 있는 교부들로만 무장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러한 종교에만 덕 있고 우아한 철학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모든 좋음의 원천인 경건 자체가 모든 지혜와 용변의 선생들 사이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마치 가족의 집에서 완전히 쉴 수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종교(행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는 조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련된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이어야(communem) 합니다. …… 전능하신 신이 정해진 때에 플라톤의 신적인 정신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보내시어 놀라운 삶과 재능과 용변을 통해 모든 종족들에게 성스러운 종교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플라톤적 태양(sol Platonicus)이 완전히

22) 피치노는 이암블리코스의 『포르피리우스가 아네본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아밤몬의 대답』을 풀어 쓴 후, 『이집트인들의 신비에 관하여』(De mysteriis Aegyptorum) (1497)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붙이면서, 서문에서 '신비'를 "이집트인들과 아시리아 사제들이 종교와 신적인 일에 대해서 생각한 것"(quid Aegyptii et Assyrii sacerdotes de religione rebusque divinis senserint)으로 정의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에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영광이자 경건을 표상하는 인물인 코시모가 플라톤적인 빛을, 종교의 안녕에 매우 이바지하는 그 빛을, 그리스인들로부터 라틴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로 애쓰는 가운데, 그의 후원 아래 많이 교육받은 나를, 그 과업을 위해 선택하셨습니다.²³⁾

이 서문에서 플라톤의 철학은 성스러운 종교와 함께 하는 유덕하고 우아한 철학으로 제시되었고, 성스러운 종교의 빛을 모든 종족들에게 비추는 태양에 비유되었다. 피치노는 종교가 행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플라톤주의를 성스러운 종교를 지지해주는 철학으로 내세운다. 여기에서 피치노는 종교를 정의내리지 않지만, 경건(pietas)의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피렌체 아카데미에서 표방하는 플라톤주의는 경건으로 이끄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피치노는 그러한 철학을 '신성한 철학으로 묘사하면서, 아카데미 바깥에서 배회하는 '속된' 철학과 구분한다.

모든 이들이 아카데미의 다양한 꽃들 사이에서 즐거워하지만, 열매를 따서 달콤함을 맛보고 쉽게 소화하고 완전히 영양을 섭취한 만큼 만족합니다. …… 관후한 로렌초여, 지혜(Sophia)는 홀로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그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를 모방하면서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오로지 자기 머리로부터 철학(Philosophia)이라는 이름의 딸을 낳았는데, 그녀의 행복은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있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뛰어난 정신들이 이 땅 위에서 다양한 종족들 사이로 순례하는 그녀를 경탄해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의 플라톤은 그녀를 경탄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가장 높게 숭배한 최초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스러운 그녀에게 사제의 머리띠를 묶었

23) Ficino, *Opera* 1128.

고, 미네르바의 위엄있는 딸에 어울리는 옷을 입혔으며, 머리와 손과 발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랐기 때문입니다. …… 아카데미의 영역 안에서 산책하는 이 여신은 그와 같았고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카데미의 정원 밖에서 방황할 때마다 항상 향기와 꽃들을 잃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 끔찍하지만, 자주 도적들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고, 성스럽고 엄숙한 장식품들을 잃어버리고, 별거벗은 채 마치 속된(*profana*) 여인처럼 도처를 배회합니다. …… 이런 이유로 그녀는, 플라톤주의자 로렌초여, 당신을 비롯해 배우고 잘 살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플라톤 아카데미(*Academiam Platoniam*)로 들어오라고 권유하면서 기뻐합니다.²⁴⁾

이 글에서 피치노의 성스러운 철학은 잘 살기를 원하는 자, 다시 말해 행복을 원하는 자에게 ‘플라톤 아카데미’로 들어오라고 초대한다. 피치노에 따르면, 행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종교이고, 플라톤주의는 그러한 종교로 이끄는 길은 철학이다. 이처럼 피치노는 플라톤주의를 종교적 관심에서 접근한다. 실제로 피치노는 그의 주저인 『플라톤주의 신학. 영혼 불사에 관하여』(1482)의 서문에서 플라톤의 철학적 가르침 전체를 ‘신학’으로 제시한다.

철학자들의 아버지인 플라톤은 모든 정신이 신에 대해, 눈이 태양의 빛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같은 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빛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인간 정신이 모든 것을 신으로부터 받았듯이, 신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르고 경건하다고 생각했다. …… 우리의 플라톤은 단지 다른 이들을 이 경건한 의무로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장 앞장섰다. 그런 이유로 그 자신은 아무런 논란 없이 신적인 사람으로 (*divinus*), 그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학(*theologia*)으로 간주되어 왔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다루든지, 도덕이든 변증론이든 수

24) Ficino, *Opera* 1129.

학이든 자연학이든, 그것을 재빨리, 최고의 경건함으로, 신에 대한 관조와 숭배로 이끌었기 때문이다.²⁵⁾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피치노의 플라톤주의가 '신학으로서의 철학'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러한 철학관은 13세기 대학에서 시작된 신학과 철학의 분리 경향에 배치된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신학은 명백히 그리스도교 신학이었고,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었다. 하지만 철학은 신학의 시녀(*ancilla philosophiae*)로서 종사하면서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14세기에 철학자들은 신학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철학의 독자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세속화, 일반적으로 말해, 철학의 탈종교화로 귀결되었다.²⁶⁾ 피치노는 이런 흐름에 거슬러 '성스러운 철학'을 내세우며, 종교와 철학의 조화, 경건과 지혜의 통합을 추구했다. 그에게 신학은 더 이상 그리스도교 신학만이 아니었고, 철학도 단순히 신학의 시녀가 아니었다.²⁷⁾ 그는 신학과 상관없거나 그것에 종속된 철학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신학일 수 있는 철학을 모색했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을 플라톤에게서 발견했던 것이다.

4. '옛 신학'

흥미롭게도 피치노는 플라톤의 신학적 철학을 오랜 전통 안에 위치시킨다. 이 전통은 조로아스터와 헤르메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이교

25) Ficino, *Opera* 78.

26) 크리스텔러(1995), pp. 153-154.

27) M. J. B. Allen (1998), *Synoptic Art. Marsilio Ficino on the History of Platonic Interpretation*, Firenze: Leo S. Olschki Editore, p. 74f.

전통이다. 피치노는 고대 이교 신학을 ‘옛 신학’(prisca theologia)이라 칭하면서,²⁸⁾ 그것을 경건한 철학으로 간주한다.²⁹⁾ 그리고 플라톤을 그러한 경건한 철학의 완성자로 내세운다. 플로티누스 번역의 서문으로 돌아가자.

따라서 이것은 분명 모두를 각자의 재능에 따라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에게 불러들이길 바라는 신적인 섭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언젠가 어떤 경건한 철학(pia philosophia)이 조로아스터 아래 페르시아인들과 헤르메스 아래 이집트인들에게 탄생했고, 양 쪽이 서로 같은 소리를 냈고, 다음으로 오르페우스와 아글라오페무스³⁰⁾ 아래 트라키아인들에 의해 양육되었으며, 곧이어 피타고라스 아래 그리스인들과 이탈리아인들에게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마침내 신적인 플라톤에 의해 아테네에서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신비가 우연히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수학적인 수들과 도형들이나 시적인 허구들로 가리는 것이 신학자들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마침내 플로티누스가 신학에서 베일을 벗겨 냈는데, 포르피리오스와 프로클로스가 증언하듯이, 그는 고대인들의 비밀을 신적인 방식으로 관통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언어적 표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간결함과 식견의 풍부함과 의미의 심오함 때문에, 언어적인 번역뿐만 아니라 주해도 필요로 합니다.³¹⁾

28) Ficino, *Opera* 156. 프로클로스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의 ‘옛 신학’ 관념이 피치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Cf. M. J. B. Allen (1998), pp. 24-25.

29) 1463년 출간된 『피만더』의 라틴어 번역의 서문에서 피치노는 ‘옛 신학’의 시조가 헤르메스라고 주장했지만, 1469년에 출간된 『필레보스 주석』(1, 17; 26)부터는 조로아스터를 더 앞세운다. 1474년에 완성한 『플라톤주의 신학』에서는 조로아스터가 헤르메스의 스승으로 등장한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세 명의 동방박사(『마태복음』2, 1-12)는 조로아스터의 기술, 즉 마법과 점성술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Cf. Ficino, *Opera*. 489-491; 844.

30) 아글라오페무스(Aglaophemus)는 피타고라스에게 오르페우스의 비의를 전수한 인물로만 알려져 있다. Cf. M. J. B. Allen (1998), p. 26, 각주 41.

31) Ficino, *Opera* 1537.

피치노는 고대 이교 전통에서 태어난 경건한 철학 내지 옛 신학이 처음부터 진리를 담지하고 있었으며, 진리의 씨앗이 자라나 하나의 포괄적인 철학 체계로 꽃피운 것이 플라톤의 철학이라고 여겼다. 이처럼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이며, 하나의 진리가 철학의 전통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다는 생각은 이후 '영원한 철학'(philosophia perennis)의 관념을 낳는다.³²⁾ 피치노는 '옛 신학'이 플라톤에 와서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수학적 상징 내지 시적 표현의 베일에 가려 있다고 보았다. 그에겐 베일을 벗겨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플라톤의 해석자로서 플로티누스를 번역하기로 했다. 하지만 플로티누스 또한 난해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플로티누스의 해석자가 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치노는 플로티누스 번역의 서두에 서문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권고문(exhortatio)을 실었다.

우선, 나는 신적인 플로티누스를 들으러 온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플로티누스의 가면 아래 말하는 플라톤 자신을 들을 것이라 믿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플로티누스로 부활했거나(revixit)(이것은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쉽게 허락할 겁니다) 아니면 동일한 신령(daemon)이 처음에는 플라톤한테, 다음으로 플로티누스한테 숨을 불어 넣었거나(이것은 플라톤주의자들이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하간 동일한 것이 플라톤의 입과 플로티누스의 입에 숨을 불어 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플라톤 안에서 숨을 쉬

32) 피치노는 이교 신학 전통, 특히 플라톤의 신학을 가리켜 "가장 맛있는 진리의 물을 맛보길 원하는 자는 반드시 저 영원한 샘으로부터(hunc...perennem fontem) 물을 마셔야 한다"(Opera 1945)고 말했다. '영원한 철학'(philosophia perennis)의 용어는 피치노의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 철학자 아고스티노 스테우코(Agostino Steuco)(1497-1548)가 1540년에 출간한 책 *De perenni philosophia*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라이프니츠와 토마스주의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애용되었다. Cf. C. B. Schmitt (1966), "Perennial Philosophy: From Agostino Steuco to Leibniz",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XXVII, pp. 507-511.

면서 더 풍성한(uberiorem) 정신을 쏟아내지만, 플로티누스 안에서는 더 간소한(angustiorem) 숨을, 더 엄숙하다고(augustiorem) 말해선 안 된다면, 적어도 덜 엄숙하지 않으며, 때로는 가히 더 심오한 숨을 쉽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신성(numen)이 둘의 입을 통해 인류에게 신성한 신탁을 쏟아 냈습니다. …… 그리고 여러분은 플라톤 자신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플로티누스를 향해 말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이, 그에게 귀기울이라.³³⁾

위의 글에서 마지막 문장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예수의 변모(Transfiguration) 일화에서 신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독실한 루터교도였던 프리드리히 크로이처는 1835년 플로티누스 전작을 편집, 간행하면서 이 인용문을 『오뒷세이아』에 나오는 다음의 인용문으로 대체했다. “그 혼자 분별 있고, 다른 이들은 그림자와 같다.”³⁴⁾ 아마도 크로이처는 플라톤과 플로티누스를 신성화하는 피치노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피치노는 플라톤과 플라톤주의자들의 저작만 번역한 것이 아니다. 그는 코시모 데 메디치의 청탁으로 전설적인 철학자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³⁵⁾가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저작들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전작을 첫 번째 논고의 제목에 따라 『피만더』(Pimander)라고 불렀다), 헤르메스 전작이 제시하는 점성술과 연금술, 그리고 마법에 심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피치노의 번역은 르네상스 시대에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³⁵⁾ 그뿐 아니라, 피치노는 조로아스터가 집필한 것으로

33) Ficino, *Opera* 1548=Plotin (1835), *Opera omnia* (ed. F. Creuzer), vol. 1, Oxford: Clarendon Press, p. xi.

34) Plotin (1835), p. xi. Cf. 『오뒷세이아』 X 495.

35) Cf. Allen (1998), p. 28. 『헤르메스 전작』(Corpus Hermeticum)은 실제로는 기원후 2-3세기에 집필된 것이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모세와 동시대를 살았거나 몇 세대 후에 살았던 고대 이집트인의 저술로 알려져 있었다. 1614년 초 프랑스의 문헌학자

(잘못) 여겨진 『칼데아 신탁』과 오르페우스의 찬가들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³⁶⁾

피치노는 이교를 종교로 인정했다. 그에게 ‘종교’는 특정 종교가 아니라, 신을 숭배하는 것 일반을 의미한다. 이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신을 숭배하는 종교이다.³⁷⁾ 피치노는 심지어 인간이 신이 숭배할 수 있도록 타고난 본능을 종교라고 부른다. “나는 ‘종교’로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되고 자연적인 본능으로, 그것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신적] 섭리를 도처에서 항상 인식하고 숭배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⁸⁾ 이 언명에 따르면, 종교성은 인간성의 일부이다. 인간은 본성상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말이다. 피치노는 인간이 신을 숭배하는 것이 “마치 말이 히힉거리고 개들이 멍멍 짖는 것처럼”(sicut equis hinnitus canibusve latratus) 자연스럽다고 표현한다.³⁹⁾

카조봉(Isaac Casaubon)이 저작의 집필 연대가 2-3세기 이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후 르네상스 헤르메스주의가 몰락한다. Cf. W. J. Haanegraaff (1996), *New Age Religion and Western Culture*, Leiden; New York: Brill. p. 390. 피치노는 이교 신학과 점성술에 대한 논의를 많이 포함한 『생명론』 때문에 1489년 교황 이노센트 8세 앞에서 이단으로 고소되었으나, 파문당하지 않았다. Cf. W. A. Euler (1998), “*Pia philosophia*” et “*docta religio*”: *Theologie und Religion bei Marsilio Ficino und 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Muenchen: Fink, p. 238.

36) C. B. Schmitt (1966), p. 510.

37) Ficino, *Opera* 324= 『플라톤주의 신학』14. 10: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은 말하고 마신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하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순서에 따라 말하고 마신다. 왜냐하면 실행의 순서(operationis ordo)는 자연 본성이 아니라 의견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모든 종족들에게서 모든 세기에 신은 경배받았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비록 동일한 의례와 방식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Similiter apud omnes gentes omnibus seculis adoratur Deus, quia naturale est, quamvis non iisdem sacris ac modis).’

38) Ficino, *Opera* 320= 『플라톤주의 신학』14. 9: Cum religionem dico, instinctum ipsum omnibus gentibus communem naturalemque intelligo, quo ubique et semper Providentia quaedam, regina mundi, cogitatur et colitur.

39) Ficino, *Opera* 319-320.

하지만 피치노는 모든 인간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실제로 비종교적이거나 반종교적인 인간도 있다. 피치노는 '경건한 철학'이 인간 내면에 잠든 종교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으며 또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명철한 사람들을 종교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로, 우리는 철학 외에 다른 미끼를 통해 명철하고(*acuta*), 다소 철학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완전한 종교로 차츰 끌어오고 인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철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오직 이성에만 충실할 것이며, 어떤 종교적인 철학자로부터 공통의 종교(*religionem communem*)를 받아들여 이룰 때, 그것을 빠르게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물들게 된 후에는 인류에 의해 이해되는 더 나은 형태의 종교로 쉽게 인도되기 때문입니다.⁴⁰⁾

피치노는 경건한 철학이 명철한 정신의 소유자들을 우선 공통의 종교로 이끌고, 나아가 완전한 종교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공통의 종교'(*religio communis*)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고 자연적인 종교'를 가리킨다. 그것은 경건한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신학이 아니라, 그들의 신학을 통해 명철한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함으로써 일깨우는 종교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통의 종교'는 모든 종교들의 '인간학적 기반'이다. 따라서 그것은 현실적인 종교들의 이상적인 원형이 아니라, 이상적인 종교 또는 완전한 종교의 기본적인 조건이다.⁴¹⁾ 그렇다면 경건한 철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완전한 종교, 그것은 무엇인가?

40) Ficino, *Opera* 1537.

41) 이 점에서 피치노의 '공통의 종교' 개념은 근대 이신론(*deism*)의 '자연 종교' 개념과 구별된다. Cf. W. A. Euler (1998), p. 240.

피치노는 앞서 제시된 경건한 철학의 계보에서 철학의 성장과 발전을 언급하면서, '신적인' 플라톤에 의해 경건한 철학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고대의 '경건한 철학'을 '배운 종교'(docta religio)라고 불렀다.⁴²⁾ 그렇다면 그는 플라톤의 경건한 철학에서 완전한 종교를 발견한 것이 아닐까? 그에게 완전한 종교는 플라톤의 경건한 철학이 수행하는 신에 대한 관조와 숭배가 아니었을까? 르네상스 플라톤주의자 피치노가 찾던 종교는 그러한 철학적 종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플라톤주의 고전을 번역한 것이 아닐까?

피치노는 플로티누스 번역의 서문에서 플라톤과 플로티누스를 번역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시인들은 종교의 역사와 신비를 불경하게 그들의 이야기들에 끌어들이는 것을 멈추어야 하며, 대부분의 소요학과 학자들은, 즉 거의 모든 철학자들은 적어도 공통의 종교에 대해서 늙은 여인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세상이 소요학과들에 의해 점령당했고, 대부분 두 학파, 즉 알렉산드로스학파와 아베로에스학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의 정신이 사멸한다고 믿고, 후자는 그것이 단일하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똑같이 모든 종교의 기반을 파괴하는데, 특히 그들이 인간을 향한 신적인 섭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 이토록 널리 퍼져 있고 명철한 정신들에 의해 지지받는 불경이 오로지 단순한 신앙의 설교를 통해 인간들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사실 그 자체가 그가 진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헤매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즉 전적으로 명백한 신적인 기적이거나 적어도 철학적 종교(vel saltem philosophica quadam religione). 후자가 철학자들을 설득하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들을 것임

42) Ficino, *Opera* 854.

니다. 이 시대의 신적인 섭리는 이러한 종류의 종교가 [교회의] 권위와 철학자들의 이성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언젠가는, 예전에 그랬듯이, 모든 종족에 의해 인정받는 기적에 의해 확인될 것입니다.⁴³⁾

이 인용문에 따르면, 피치노는 당시의 '불경한'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설득하기 위해 철학적 종교를 필요로 한다. 특히, 그는 기존의 철학계를 주도해 온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다. 그에 따르면,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대표한 알렉산드로스학과와 아베로에스학파는 각기 정신의 사멸과 단일성을 주장함으로써 종교의 기반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종교의 기반으로 인간 정신의 불멸과 개별성을 전제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피치노는 개별적인 정신(영혼)의 불멸이 인간의 존엄성의 기반이자 자유와 책임, 나아가 신성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라고 믿었다.⁴⁴⁾

그런데 피치노는 이성에 의해 확인되는 철학적 종교 외에, 아니 그 위에 기적을 통해 확인되는 종교를 상정하고, 그것을 '가장 참된 종류의 종교'(verissimam religionis speciem)라고 칭한다.⁴⁵⁾ 이로부터 그가 철학적 종교보다 더 참된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여기에서 우

43) Ficino, *Opera* 1537.

44) 피치노의 주저인 『플라톤주의 신학: 영혼의 불사에 관하여』는 개별 영혼과 정신의 불멸을 옹호한 대작으로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담고 있다. 크리스텔러(1995), pp. 234-238. 피치노의 논변은 주로 플로티누스의 『영혼의 불사에 관하여』(Enn. IV 8)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 저작 『영혼의 불사에 관하여』(De immortalitate animae)에 의존한다. Cf. A. Levi (2002), "Ficino, Augustine and the Pagans", *Marsilio Ficino: His Theology, His Philosophy, His Legacy* (ed. by Allen and Rees), Leiden: Brill, p. 105.

45) 『플라톤주의 신학』14. 9 (=Op. 319-320)에서 피치노는 경건으로 이끄는 세 가지 원인으로 (1) 자연적인, 다시 말해 본능적인 지혜, (2) 철학적 사유와 (3) 예언과 기적을 꼽았다(14. 9). 피치노는 이 세 가지 원인 가운데 예언과 기적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다.

리는 피치노가 그리스교도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피치노는 1473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 서품을 받았고 1487년에는 피렌체 대성당의 참사회 의원(canonicus)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그리스도교에 관하여』(1474)에서 그리스도교를 옹호했으며, 『플라톤주의 신학』(1482)에서는 플라톤주의와 그리스도교의 조화를 시도했고, 죽기 직전까지 『로마서 주해서』 집필에 몰두했다. 그러므로 피치노가 가짜 그리스도교인이 아닌 이상, 그에게 '가장 참다운 종류의 종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교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피치노는 당시 그리스도교의 현실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위의 인용문에서 그는 불경한 철학자들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철학자들을 '단순한 신앙의 설교'로 교화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후자는 당시 그리스도교 교회 내부의 반지성주의적 조류나 신앙주의적(fideistic) 태도를 암시한다.⁴⁶⁾ 피치노는 불경한 철학과 무식한 종교를 치유하기 위해 경건한 철학 내지 철학적 종교의 힘을 빌리기로 했으며, 그러한 '철학적 종교'를 플라톤주의에서 발견한 것이다. 또한 그는 그러한 '철학적 종교'로서의 플라톤주의를 당시 교회의 권위와 철학자들의 이성에 의해 인정받도록 만드는 것이 자기 시대의 과업이자 자기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5. 철학적 종교

피치노가 '철학적 종교'로서 플라톤주의와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어떻게

46) 피치노와 동시대인이자 피렌체에서 예언자-설교자-정치가로 활약한 도미니코회 수도사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 1452-1498)는 신앙주의(fideism)에 입각하여 교회 개혁을 추진했으며, 이교적인 사상과 예술에 적대적이었다. 피치노는 사보나롤라의 노선에 반대했다. Cf. M. J. B. Allen (1998), p. 20.

게 보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피치노는 『그리스도교에 관하여』(De christiana religione)에서 “신적인 섭리는 이 세상에 종교가 완전히 결여된 곳이 있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고대 이교들을 종교로서 인정했다.⁴⁷⁾ 또한 그는 ‘옛 신학’(prisca theologia) 전통에서는 지혜와 경건이 합일을 이루었지만, 이후 그러한 합일이 깨어지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은 불경해지고 경건을 추구하는 종교는 미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는 당시 종교의 미신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다. 피치노는 지혜와 경건의 합일을 회복하기 위해, 철학을 불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종교를 무지와 미신으로부터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이교 신학과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특히, ‘옛 신학’의 황금 사슬의 마지막 고리인 플라톤주의를 그리스도교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한다. 『플라톤주의 신학』의 서문에서, 그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플라톤의 그리스도교화’를 시도했음을 밝힌다.

플라톤의 작품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 전에 모든 작품을 라틴어로 옮겼는데, 중요한 것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발견할 것이다: 인식을 통한 신의 경배(pium cogniti Dei cultum)와 영혼들의 신성(animorum divinitatem). 이것들에 사물들에 대한 모든 지각이 성립하고, 모든 삶의 가르침과 모든 지복(felicitas)이 성립한다. 사실, 이것들 때문에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을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가장 가까운 자로서 모든 철학자들 가운데 그가 모방할 모범으로 선택했고, 약간만 바꾸면, 플라톤주의자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⁸⁾ 실로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권위에 의존하고, 인류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이끌려서, 오래 전에 플라톤의 초상을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되도록 비슷하게 표현하기로 결심했다.⁴⁹⁾

47) Ficino, *Opera* 4.

48) Augustinus, *De vera religione*, IV 7; *Confessiones*, VII 9, 13-14.

서양의 고대 후기에 그리스도교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주의의 수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테르툴리아누스(ca. 155-230)는 “도대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인가? 아카데미와 교회가 무슨 상관인가?”라고 물으면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단순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것”(『지혜서』1장 1절)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아무런 [철학적] 호기심도 필요 없다”라고 설파했다.⁴⁹⁾ 이처럼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 철학을 배척했다. 이에 반해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헬레니즘의 지적인 전통에 우호적이었다. 특히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주의와 그리스도교의 유사성을 강조했으며,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라톤의 철학을 그리스도교 내부로 통합하길 시도했다.⁵¹⁾ 피치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통합의 길을 선택했다.

1481년 아말피의 주교 니콜리니(Giovanni Niccolini)에게 보내는 편지는 피치노가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라 처음으로 아카데미, 즉 플라톤 철학으로 인도되었음을 확인해 준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신적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권위에 의해 인도되었고, 다음으로 많은 그리스도교 성인들의 증언에 의해 복돋워져서, 내가 분명 철학을 해야만 했을 때, 주로 아카데미에서 철학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플라톤의 가르침이 - 달이 해에 관계하듯이, 신적인 법, 즉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교 법에 관계하는데(*doctrina Platonica, quae ad diuinam legem, id est,*

49) Ficino, *Opera* 78.

50)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VII 9-12.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리스도교인들의 대화와 갈등에 대해서는 E. R. Dodds (1965), *Pagan and Christian in an Age of Anx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05f.

51) 피치노는 반-펠라기우스주의와 원죄론을 강조하는 후기 아우구스티누스 저작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초기 저작을 자주 인용했다. Cf. A. Levi (2002), p. 103.

Mosaycam Christianamque tanquam Luna quaedam se habet ad Solem) - 더 환하게 빛나도록, 나는 모든 플라톤의 책들을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옮겼다. 나아가, 누군가의 눈들이 이 새로운 빛을 바라볼 때 흐려지지 않도록, 나는 일종의 주해서를 저술해서 18권으로 나누었다.⁵²⁾ 여기에서 플라톤의 신비를 힘껏 설명했고 그의 말보다는 정신을 따랐다. 시적인 베일을 걷어내어, 신적인 법과 전적으로 합치하는 플라톤의 식견(sententia)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명철한 정신들이 - 신적인 법칙의 권위 자체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이들이 - 결국 종교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플라톤적 이성⁵³⁾에 굴복할 수 있도록, 신적인 섭리에 의해 나의 과업이 배정된 것이라고 내가 주장할 때, 나는 내 믿음이 헛되었다고 여기지 않는다.⁵³⁾

이 글에서 피치노는 '플라톤적 이성'에게 그리스도교를 거부하는 지식인들을 교화하는 기능을 부과한다. 결국, 그에게 플라톤주의는 배운 자들을 위한 배운 종교(docta religio)이자 동시에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준비하는 경건한 철학(pia philosophia)을 의미했던 것이다.⁵⁴⁾ 이것은 다시금 그에게 그리스도교가 반지성주의적이거나 비이성주의적인 종교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이성⁵⁵⁾에 의해 전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물론, 그는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이성을 초월한 차원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그에 따르면, 신앙은 이성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신학적 덕으로서 믿음은 소망과 함께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이 사랑이 이성보다 훨씬 강하게 신과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다.⁵⁵⁾ 사실, 이성의 한계에 대한 철학적 반성과 이성을 뛰어 넘는 사랑의 체험은 이미 플라톤주의 전통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⁵⁶⁾ 이 점에서 피치노의 그리스도

52) 『플라톤주의 신학』을 가리킨다.

53) Ficino, *Opera* 855, 1.

54) Cf. 김영선(2008), 『M. 피치노의 사랑론: De amore를 중심으로』, 가톨릭철학 4, p. 129.

55) Ficino, *Opera* 471. Cf. W. A. Euler (1998), p. 232-233.

교는 플라톤주의와 멀지 않다.

하지만 피치노는 플라톤주의의 철학적 논변에 대해 그리스도교 전통의 우위를 주장했다.⁵⁷⁾ 또한 고대 후기 플라톤주의자들이 요한복음의 ‘로고스 신학’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수용했다는 교부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⁵⁸⁾ 나아가, 그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등장하는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타가 『신비 신학』(De mystica theologia)과 『신명론』의 저자라고 믿고서,⁵⁹⁾ 그가 ‘플라톤의 가르침의 정점이자 기독교적 신학의 기둥’⁶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도 바울이 개종시킨 이 아테네인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플라톤 철학의 완벽한 합일을 대표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교회 내부의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그의 가르침은 소실되었고, 그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주의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명철한 지성들이 그리스도교로 인도될 수 있었다고 짐작했다. 그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플로티누스는 ‘신적인 플라톤’을 해석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의 빛을 사용한 플라톤주의자이다.⁶¹⁾

56) 송유례(2013), 『신을 향한 에로스. 플로티누스의 철학적 신비주의』, 서양고전학연구 51, pp. 71-106.

57) 『플라톤주의 신학』 XVIII 8와 리미니의 주교 론도니(Rondoni)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피치노는 플라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Trinity)와 그리스도의 육화(incarnation)를 알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는 때때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가령, 세례를 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들과 이교도 철학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원칙적으로 개방했다. Cf.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의 철학자들의 구원에 관하여』(De salute philosophorum ante Christi adventum)=Op. 806. Cf. A. Levy (2002), p. 112; J. Lauster (2002), “Marsilio Ficino as a Christian Thinker: Theological Aspects of his Platonism”, *Marsilio Ficino: His Theology, His Philosophy, His Legacy* (ed. by Allen and Rees), Leiden: Brill, p. 66.

58) Ficino, *Opera* 25.

59) 이 저술들의 저자는 5세기 이후 프로클로스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

60) Ficino, *Opera* 1013.

61) Ficino, *Opera* 25. Cf. *Opera* 17: “왜냐하면 저 신성한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주의 해석자들 가운데 으뜸인 그는, 그리스도교 신학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본받기 위해

이제 피치노는 그리스도교의 참다운 가르침을 회복하기 위해, 먼 옛날 플라톤에 우호적이었던 교부들이 그랬듯이, 플라톤주의의 빛을 사용하기로 한 것 같다. 이 점에서 피치노는 플라톤주의와 함께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교부철학도 부활시킨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결국 그리스도교를 플라톤주의화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피치노가 그토록 강조한 개별 영혼의 불멸성은, 비록 그리스도교 교부들로부터 전해진 교리에 속하지만,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실제로 영혼의 불멸을 주장한 교부들은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다. 피치노의 영혼 불멸론은 16세기 가톨릭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마침내 1513년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교회의 공식적 교리로 선언된다.⁶²⁾

또한 피치노가 죽기 얼마 전 『로마서 주해』에서 그린 성 바울은 경건한 플라톤주의자를 많이 닮은 그리스도교적 철학자의 모습이었다.⁶³⁾ 그는 『고린도후서』12장 2-4절에 언급된 황홀경을 언급하면서, 성 바울이 올라간 ‘셋째 하늘’이 우리 내면에 있는 최고 이성(ratio)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그에 따르면, 인간 안에는 땅과 함께 세 개의 하늘이 있는데, 땅은 육체와 육체적 감각과 감정이고, 첫째 하늘은 실천적 이성, 둘째 하늘은 세계의 질서를 인식하는 자연적 이성(ratio physica)이고, 셋째 하늘은 신적인 존재를 관조하는 신학적 이성, 즉 정신(mens)이다. 바울이 체험한 신비(arcana mysteria)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정신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신으로 신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금 세 단계의 하늘을 올라가야 하는데, 첫째 하늘은 믿음(fides)이고, 둘째 하늘

공부한 누메니오스, 이암블리코스와 아멜리우스처럼 [신의 무기들을] 공경했다.” 피치노는 포르피리오스와 프로클로스를 비롯한 많은 플라톤주의자들이 그리스도교에 적대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M. J. B. Allen (1998), pp. 72-85은 피치노가 그리스도교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플라톤주의자들을, 특히 플로티누스를 그리스도교의 동맹자로 보길 원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62) 크리스텔러(1995), p. 239.

63) Ficino, *Opera* 436-438.

은 소망(*spes*)이며, 셋째 하늘은 사랑(*charitas*)이라고 한다. '말할 수 없는 천상의 사랑 안에서(*in charitate seraphica ineffabilis*) 비로소 신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다.⁶⁴⁾ 철학적인 그리스도교인, 그리스도교적인 철학자로 그려진 바울의 초상이 바로 피치노 자신이 바라던 자화상이 아니었을까?

6. 결론

중세 신학 연구자로 이름 난 에티엔느 질송은 르네상스가 '인간을 더한 중세가 아니라, 신을 뺀 중세'라고 평가했다.⁶⁵⁾ 이것은, 크리스텔러가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르네상스 문화 전반에 대한 오해, 특히 르네상스 철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지극히 부당한 평가이다.⁶⁶⁾ 부르크하르트가 간파했듯이, 종교 개혁의 바람이 일었던 북부 유럽에서만이 아니라, 세속화 경향이 두드러졌던 이탈리아에서도 르네상스의 주역들은 종교적인 인간들이었다.⁶⁷⁾

종교성은 피치노의 플라톤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피치노는 당시 종교인들의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태도를 혐오했지만, 종교에 대한 지식인들의 냉소적 태도 또한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교를 '배운 종교'로 만들기 위해, 고대의 플라톤주의를 되살리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피치노의 플라톤주의는 '경건한 철학(*pia philosophia*)이다.

피치노는 개인의 내면에서 종교의 쇄신을 추구했기 때문에 교회의 정치,

64) Ficino, *Opera* 425.

65) E. Gilson (1955), p. 192.

66) 크리스텔러(1995), p. 143.

67) 부르크하르트(2003), 이기숙 역,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파주: 한길사, p. 581.

제도적 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그의 플라톤주의는 북방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과 같은 대중적인 운동으로 이어질 수 없었다. 사실, 피렌체 아카데미에서 가꾼 플라톤주의는 지적 엘리트들을 양성하기 위한 철학이었다. 이러한 철학은 메디치가가 집권하기 이전 피렌체 공화국에서 주로 고전 문헌학과 수사학에 능통했던 인문학자들이 추구했던 소위 '시민적 인문주의'에 비해 '귀족적'이라고 할 수 있다.⁶⁸⁾ 하지만 그것은 신분적인 귀족이 아니라, 정신의 귀족을 기르는 철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코 델라 미란돌라, 미켈란젤로, 보티첼리와 같은 '황금 지성'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치노가 플라톤을 번역하고 연구한 것은 오로지 소수의 천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앞서 보았듯이, 그는 자신이 '인류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이끌려서' 플라톤을 연구했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피치노의 플라톤주의는 그가 미네르바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규정한 '인간성(humanitas)에 종사하는 철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피치노는 신적인 섭리에 의해 자신이 플라톤주의를 오랜 중세의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 사명을 지녔다고 믿었다. 이러한 신적인 사명감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그는 플라톤과 플라톤주의자들의 수많은 책들을 번역해서 피렌체 아카데미의 정원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에서 우리는 왜 플라톤을 번역하고 연구하는가?

68) Cf. 나우어트(2002), pp. 61-74.

참고문헌

【자 료】

- Ficino, Marsilio (1576), *Opera omnia*, 2 Bde., Basel: Henricus Petri (ND: Ivry-sur-Seine: Phénix éditions 2000).
- Petrarca, Francesca (1955), *Prose*, ed. G. Martellotti et alii, Milano; Napoli: Ricciardi.
- Plotin (1835), *Opera omnia* (ed. by F. Creuzer), vol. 1, Oxford: Clarendon Press.

【논 저】

- 김영선(2008), 『M. 피치노의 사랑론: De amore를 중심으로』, 가톨릭철학 4, 128-146.
- 나우어트, C. G. (2002), 진원숙 역, 휴머니즘과 르네상스 유럽문화, 서울: 헤안.
- 부르크하르트, J. (2003), 이기숙 역,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파주: 한길사.
- 송유례(2013), 『신을 향한 에로스. 플로티누스의 철학적 신비주의』, 서양고전학 연구 51, 71-106.
- 크리스텔러, P. O. (1995), 진원숙 역, 르네상스의 사상과 그 원천,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Albertini, T. (2010), "Marsilio Ficino (1433-1499): The Aesthetics of the One in the Soul", *Philosophers of the Renaissance* (ed. by P. R. Blum), Washington, D. 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82-91.
- Allen, M. J. B. (1998), *Synoptic Art. Marsilio Ficino on the History of Platonic Interpretation*, Firenze: Leo S. Olschki Editore.
- Cassirer, E. (1945), "Ficino's Place in Intellectual Histor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6, 483-501.
- Copenhaver, B. P (1992), *Hermet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ds, E. R. (1965), *Pagan and Christian in an Age of Anx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uler, W. A. (1998), "*Pia philosophia*" et "*docta religio*": *Theologie und Religion bei Marsilio Ficino und 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Muenchen: Fink.

- Field, A. (2002), "The Platonic Academy of Florence", *Marsilio Ficino: His Theology, His Philosophy, His Legacy* (ed. by Allen and Rees), Leiden: Brill, 359-376.
- Gilson, E. (1955), *Les idées et les lettres*, Paris: Vrin.
- Haanegraaff, W. J. (1996), *New Age Religion and Western Culture*, Leiden; New York: Brill.
- Kristeller, P. O. (1990), *Renaissance Thought and the Ar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72), *Die Philosophie des Marsilio Ficino*, Frankfurt am Main: Klostermann.
- Lauster, J. (2002), "Marsilio Ficino as a Christian Thinker: Theological Aspects of his Platonism", *Marsilio Ficino: His Theology, His Philosophy, His Legacy* (ed. by Allen and Rees), Leiden: Brill, 45-69.
- Levi, A. (2002), "Ficino, Augustine and the Pagans", *Marsilio Ficino: His Theology, His Philosophy, His Legacy* (ed. by Allen and Rees), Leiden: Brill, 99-113.
- Niethammer, F. I. (1808), *Der Streit des Philanthropinismus und Humanismus in der Theorie des Erziehungs-Unterrichts unsrer Zeit*, Jena: Frommann.
- Saffrey, H. D. (2000), "Florence, 1492: The Reappearance of Plotinus", *Le Néoplatonisme après Plotin*, Paris: Vrin, 277-293.
- Schmitt, C. B. (1966), "Perennial Philosophy: From Aogstino Steuco to Leibniz",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XXVII, 505-532.
- Stroh, W. (1989), "Der Ursprung des Humanitätsdenkens in der Römischen Antike", http://epub.ub.uni-muenchen.de/1273/1/senior_stud_2006_11_01.pdf.
- Tambrun, B. (2006), *Pléton. Le Retour de Platon*, Paris: Vrin.
- Toussaint, S. (2008), *Humanismes, Antihumanismes. De Ficin à Heidegger*. Tome 1, Paris: Les Belles Lettres.
- Zintzen, C. (1998), "Plotin und Ficino", *Ψυχῆ - Seele - anima*. Festschrift für Karin Alt zum 7. Mai 1998 (ed. by J. Holzhausen), Stuttgart/Leipzig: Teubner, 417-435.

원고 접수일: 2015년 4월 19일

심사 완료일: 2015년 7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5년 7월 30일

ABSTRACT

Why Translate Plato?
The Answer of the Renaissance Platonist Ficino

Euree Song*

Marsilio Ficino is considered to be a central figure of the Florentine Academy, who contributed to the revival of Platonism in the Renaissance by translating Plato's complete works and other major Platonists' writings into Latin. But why did he translate Plato and his follower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lucidate what kind of Platonism Ficino tried to revive and why. For this purpose, I draw attention in particular to the 'prefaces' of his translations, commentaries or treatises. Ficino's prefaces show the objectives and intentions of his publications and the meaning and the role which he attributed to Platonism. We begin with a brief look at the main features of Renaissance humanism which forms a background to Ficino's Platonism. In this connection, we consider what he understood by 'humanitas', a key concept of Renaissance humanism. We then turn to Ficino's prefaces and some other writings, which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Platonism sought by Ficino is a 'pious philosophy' or theology, even a philosophical religion. In order to elaborate this interpretation, we

* Department of Philosophy, Kyung Hee University

first clarify the conceptions of ‘prisca theologia’ and ‘common religion’, which Ficino used to situate Platonism in the tradition of pagan religion. Next, we investigate how Ficino, as both a Platonist and a Christian, conceive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onism and Christianity. It is shown that Ficino found in Platonism a philosophical means for preparing ‘intelligent’ people for Christianity. Yet, in his attempt to appropriate Platonism in a Christian way, he seemed eventually to Platonize his own vision of Christianity.